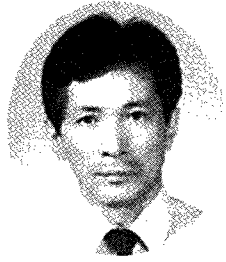


## 原子力 PA 對象그룹과 戰略



정 준 극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홍보협력부장

**원**자력 PA의 대상은 일반대중이다. 지역주민도 일반대중의 범주에 속한다. 일반대중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사회과학자인 Elisabeth Swaton 박사(IAEA)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대중이란 우선 사고력이 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면을 말한다. 정신박약자 또는 정신이상자는 PA 대상으로서의 일반대중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신요양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자력 PA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말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여 뇌사상태에 있다든지 또는 중병으로 안정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건전한

사람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용어로 말한다면 국가와 사회에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선량한 시민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금치산자 같은 사람은 PA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넷째로는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아주 불학무식하다 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PA의 대상은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는 현 시점에서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세상을 등지고 심산유곡이나 절해고도에 가서 사는 사람까지도 포함키는 어려운 일이다. 또 외국에 이민 가서 살거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시키는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자세를 갖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포함키가 어렵다는 뜻이다. 예컨대 열성과 반체제인사 또는 반원자력주의자까지 PA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섯가지 조건 이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더 있다. 각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전통성, 문화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경제적 상황, 심리적 배경, 종교적 배경 같은 것이 고려대상이다. 이러한 배경을 일반대중의 알파성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PA를 다루는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다.

### 일반대중의 구분

우리가 원자력 PA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PA의 대상인 일반대중의 범주를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속성별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이에 따른 PA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함이다.

일반대중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세대별 구분이다. 즉,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적극적인 현실참여, 신물질주의, 심지어는 New Age 사상까지도 갖고 있는 층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메시지는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년층은 보수주의적 성향이 있다. 급격한 변화를 못마

땅하게 생각한다. 조상을 생각하는 폭이 넓으며 선조대대로부터 물려 받은 고향 땅을 사랑한다. 한편 노년세대는 급변하는 핵가족시대의 조류에 따라 점차 산업사회와 다양한 문화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노년세대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생활수준에 따른 구분이다. 우리의 사회에는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 중산층이 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이 있기 마련이다. 저소득층은 주로 농어민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시중산층과 농어촌의 저소득층과는 여려가지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달코자 하는 메시지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교육수준에 따른 구분이다.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사람과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에 대한 메시지는 같을 수가 없다.

마지막 구분은 사상 또는 신념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정부를 신뢰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른바 애국적인 층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반체제적, 반정부적인 층도 있다. 이들에 대한 메시지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 대상이 누구인가?

IAEA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대상그룹은 다음 16개 계층이다<표 1>.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PA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표 1> IAEA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PA 대상그룹

|        |        |      |       |
|--------|--------|------|-------|
| 원자력종사자 | 교사, 교수 | 학생   | 정치인   |
| 산업계    | 언론인    | 공무원  | 노조지도자 |
| 경제계    | 의료인    | 사회단체 | 종교인   |
| 문화예술인  | 여성단체   | 환경단체 | 지역주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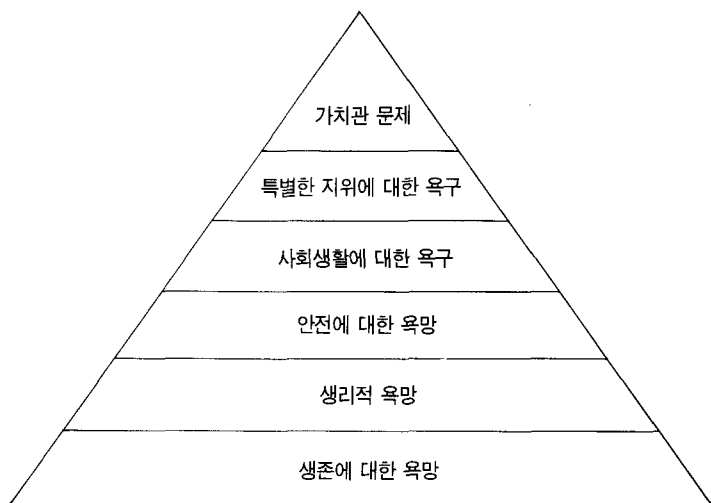
이밖에도 PA 대상으로는 수많은 계층이 있다. 예를 들면 이발사나 미용사도 중요한 PA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직업이 수천가지, 수만가지나 되는데 이를 모두 고려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PA 대상으로 삼는 계층은 사회여론주도층이어야 하며 아울러 신뢰성이 있는 계층이어야 한다.

### 정보의 홍수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때문에 어떤 정보를 주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부반응만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원자폭탄만을 생각하고, 또 방사선이라고 하면 불치의 암이나 기형아출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계 에너지현황이나 원자로의 이용률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면 그런 정보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기 마련이다. 오히려 방사선에 의한 암치료 같은 얘기를 해준다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일의 심리학자인 Maslow 교수의 피라미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그림 1>.

Maslow 교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림 1> Maslow 교수의 피라미트

인 욕망을 6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존권에 대한 것이다. 누구든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호소력이 있는 것이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코자 하는 것이 인간심리이다. 무병장수로 건강하게 사는 문제, 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문제, ...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코자 하기 마련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안전보장에 대한 욕망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재산을 지키거나 신변을 보호코자 하는 욕망이다. 그 다음 단계는 사회생활을 아무런 난관없이 지내려는 욕망이다.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기를 바라며 직장동료들과의 사이도 아무런 문제없이 훌륭하게 지탱되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가정도 하나의 사회이므로 무리없는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욕망이다.

이런 여러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바라는 것이 특별한 지위에 대한 욕망이다.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고 싶고, 단체에서는 대표로 선발되기를 바라며, 사회에서는 유명인사로 행세하고 싶은 것이

다. 마지막 단계의 인간욕구는 가치관에 대한 것이다. 자신의 가치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는 아마 사람이라면 한번쯤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덕성 회복이 사회와 인간의 가장 큰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전쟁없는 세계평화가 최고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 종교인이라면 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우선하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으며,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이 가치관일 수도 있다. 원자력이야말로 에너지문제 해결의 주역이며 다른 어떤 기술이나 자원도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는 것도 가치관일 수가 있다.

인간의 욕망이 어떤 단계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구사항과 정보제공의 함수관계이다. PA라는 것이 일반대중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PA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일반대중, 즉 인간의 기본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 특별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원자력사업자가 내놓는 홍보물을 보면 안전성 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

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방호 개념이니 「알라라」니 하면서 쉽지도 않은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원자력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중방호개념과 같은 내용이 농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반면 반핵측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인간욕구의 기본 부분인 생존에 대한 문제와 생물학적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다. 반핵측의 자료와 주장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죽음, 공포, 생존, 의식주, 번식 그러한 문제에 귀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측에서도 인간욕구의 기본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 어떤 정보 제공되고 있는가?

원자력측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10가지를 뽑아 보았다.

1. 에너지사용과 자원문제
2.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3. 원자력발전의 원리
4. 원자연료주기(우라늄의 일생)
5.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6.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7. 폐기물관리
8. 방사선과 생활
9. 사고와 확률
10. 차세대원자로

한편 반핵측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의 인체장해(죽음)
2. 사고에 대한 피해(공포)

3. 값비싼 원자력발전(국민세금과다부담)

4. 농산물피해(생존)

5. 어업피해(생존)

6. 기형가축, 기형아 출산(생존)

7. 배수 등 공해(생존)

8. 부동산가격 하락(생존)

9. 실업(농부가 땅을 잃기 때문에, 생존)

10. 후대에까지 미치는 폐기물의 독성(생존)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원자력을 진흥하는 측이 내세워야 할 메시지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노릇이다.

## 대상그룹과 메시지 전략

### 1. 원자력가족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공사, 한국핵연료(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같이 원자력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전직원은 가장 중요한 홍보대상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나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부서 직원이 원자력사업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지식이 없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들 원자력종사자의 가족도 중요한 홍보대상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 남편이 원자력발전소에 다니니 건강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가정주부에게 있어야 한다.

원자력 관련기관, 말하자면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

중공업(주), 동위원소 관련기관, 건설업체 등의 직원들도 중요한 홍보대상이다. 각종 기자재 제조업체의 종업원들도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홍보효과와 만점이 아닐 수 없다.

다시 강조하자면 원자력직원과 그 가족이야말로 가장 좋은 홍보요원이며 강사이다. 이들이 신뢰성을 보일 때 원자력사업의 알파효과는 측정기 어려울 만큼 크다. 원자력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원자력종사자를 죄인시하는 사회풍토를 과감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야말로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발전은 물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는 공로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인사에 대한 유대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만스럽게 퇴직한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하이드로전력회사에서 원자력 안전분야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회사와의 갈등이 있어서 퇴직하고는 반핵단체인 Energy Probe의 핵심인물이 되었다. 온타리오 하이드로社가 얼마나 큰 곤란을 겪었는지는 짐작코도 남음이 있다. 미국 알콘국립연구소는 퇴직인사관리를 잘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연구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며 무슨 행사가 있으면 청첩을 보내 참여케 하고 있다. 요컨대 연구소에 대한 애착심을 다분히 갖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가의 원자

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훌륭히 선전해 주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 2. 교사, 교수

이공계대학의 교수는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학교사(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 역시 중요한 대상그룹이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이 된다. 최소한 이공계 대학 교수와 고등학교 과학교사만이라도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 교사와 교수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원자력을 통한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밝은 앞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내용이면 될 것이다.

### 3. 학생

대학생 특히 이공계 전공의 대학생은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생 중 과학을 공부코자 하는 대상도 마땅한 그룹이다. 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므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쨌든 학생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자원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에너지 자립 없이는 앞으로의 사회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는 현실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 4. 정치인

정당의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집권정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국

회의원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대상그룹이다. 의원보좌관이나 국회사무처의 입법조사관도 매우 중요한 대상그룹이다. 한편 지방자치 체제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시, 도, 군) 역시 대단히 중요한 대상 그룹이다.

이들에게는 원자력기술이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며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사회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원자력시설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도록 함이 필요하다.

#### 5. 산업계

전력 다소비 산업체는 매우 좋은 PA 대상그룹이다. 에너지 특히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업활동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따라서 경제침체가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여 이해토록 함이 필요하다. 원자력사업이 확대되면 그로 인하여 제조업체의 활동 역시 활발해진다. 이러한 예는 외국의 경우에서 많이 보아온 터이다.

#### 6. 언론인

일간지 기자, 방송(라디오, TV) 기사는 물론, 잡지사 기자 역시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취재기자 뿐만 아니라 편집자, 논설위원, 해설위원, 논평자, 자유기고가도 대단히 중요한 대상이다. 언론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중앙일간지의 과학담당 기자만을 고려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아파르트지내에서 발간되는 「상가로」나 「가로수」, 「교차

로」와 같은 광고성 간행물의 담당자도 매우 중요한 PA 대상이다. 어린이잡지 기자 역시 중요하다. 어린이잡지에 원자력을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려놓은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방사선은 우주인이 사용하는 살인광선으로 되어 있고, 방사성물질 때문에 작은 거미가 공룡만큼 커져서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는 내용의 만화도 있다. 이런 만화를 보는 아이들은 과연 원자력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때문에 어린이 만화잡지 편집자나 취재기자가 원자력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언론인에게는 사회의 여론주도층으로서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고 원자력이 사회발전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알기 쉽게 제공해 주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 7. 공무원

정부기관의 공무원 중 특히 원자력관련 정부부처의 담당공무원은 중요한 PA 대상이다. 내무부, 건설부, 상공부, 법무부 등을 말한다. 과기처나 동자부의 관련 공무원이 중요한 PA 대상그룹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찰은 매우 중요한 PA 대상이다. 반핵시위, 집회가 격렬하게 진행될 경우 경찰이 투입될 수가 있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과연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를 확실히 알

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찍이 독일에도 원자력사업자가 그 지방의 경찰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져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 Wackersdorf의 원자력시설을 반대하는 극렬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투입되었을 때 종전과는 달리 왜 이 시위를 막아야 하는지를 경찰들이 잘 알고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면도, 영일군, 영덕군, 울진군 같은 곳에서 격렬한 반핵시위가 있었다. 경찰이 투입되었다. 경찰에게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가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이 있었다면 더욱 큰 사명감으로써 혼란을 막았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번영, 사회의 안정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이 국민을 위한 에너지이며 국가를 위한 기술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 8. 노조지도자

원자력 관련산업체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한 PA 대상 그룹이다. 원자력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회사가 살고 종업원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건설업체와 제조업체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시설과 같은 대형 건축물 프로젝트가 있어야 건설업체나 제조업체의 경기가 활성화되며 따라서 종업원의 처우도 향상된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자력은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마련해 준다. 원자력발전소 1기가 건설될 경우 건설, 제조, 보수, 운전 등에 걸친 많은 고용기회가 주어지며 나아가 폐로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직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이 노동자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이해토록 함이 필요하다.

### 9. 의료인

병원의 의사는 어느 직종보다도 신뢰를 많이 받는 직종이다. 의사가 무어라고 하면 그 말을 믿는 것이 상식이다. 만일 의사가 방사선이 무조건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반인은 그저 믿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우선 의사에게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의료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모두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원자력의 의료적 이용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폭넓게 이해시켜 주는 일이 필요하다. 또 방사선과 일상생활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 10. 사회단체

YMCA, YWCA, 라이온스클럽, 키와니클럽, 청년회의소 같은 사회봉사단체는 사회여론 주도단체로서 매우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원자력중사자들도 이러한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봉사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원자력이 보다

문명화된 사회를 이룩하며 일반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부각해 줘야 필요하다.

### 11. 종교인

천주교 신부와 수녀, 기독교 목사와 전도사, 불교의 승려들 역시 매우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이들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여론주도층이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인 특히 젊은 목회자나 신부들은 자신들이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대변자이며 보호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주민과 원자력시설의 일반 노동자야말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원자력을 반대하는 일도 있다. 원자력을 파괴의 장본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원자력이 파괴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을 반대한다는 이유도 내세우는 측이 있다. 심지어 어떤 종교인은 원자력이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나는 무조건 분열을 반대한다』면서 반핵에 앞장선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이 필요하다. 원자력이야말로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회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력으로 건강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다.

### 12. 문화예술인

유명 문인, 화가, 시인, 음악가,

배우, 만화가(특히 어린이 만화가) 등은 매우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대로 예술인은 개성이 두드러지고 자기 분야에 대한 일종의 아집이 있으므로 이들의 영향력에 비하여 원자력측의 PA 전략은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다. 미국의 어떤 가수가 부른 반핵노래는 순식간에 젊은 층에 파고 들어서 급기야는 반전, 평화운동으로 확대된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원자력을 반대한다고 하는 바람에(실은 日本 플루토늄의 인도네시아 해역 운항을 반대한 것임) 원자력계가 크나큰 곤란을 겪은 일도 있다.

이들에게는 이상적인 가치창조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가치창조라는 어려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여튼 문화예술인에게는 문화생활과 에너지의 함수관계를 이해시키는 일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기가 부족하여 극장이 문을 닫는다면 배우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13. 경제인

원자력사업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금융계 인사, 투자자, 경제계획의 입안자들에게 원자력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국가 에너지수요 전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계의 투자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사업의 추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설명항목이다.

#### 14. 여성단체

소비자단체와 같은 여성단체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PA 대상그룹이다. 가정주부, 특히 원자력시설 종사자의 부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PA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원자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살기 좋고 더 편리하게 해 준다는 점을 강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자력으로 보건의 향상이 된다는 점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방사선으로 부인암을 대폭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자력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낀다는 주부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자녀에게 깨끗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남겨주자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원자력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이 필요하다.

#### 15. 환경단체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개선될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야 우선 잘 살고 보자고 해서 환경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으나 일단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환경문제, 공해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당연한 사회 추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경운동과 반핵운동은 일맥 상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우리 원자력계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역시 환경운동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반핵운동에도 동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핵운동은 핵무기 반대운동에 국한한다.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핵무기 반대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와 핵무기가 다르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가 중요한 PA 대상그룹이기는 하나 극렬 환경단체와는 대화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일부 극렬 반핵단체의 핵심인물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반대를 신념으로 알고 있고 신앙으로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PA 활동을 해야 할 대상은 일반 환경보호단체이다.

#### 16. 지역주민

농어민,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인, 지방행정관서의 공무원, 마을 유지, 마을청소년회 대표, 마을부녀회 대표, 노인회 대표 등 모두들 중요한 PA 대상이다. 특히 노인층은 우리와 같은 전통관습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이해를 얻어야 할 대상이다.

지역주민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한 원자력시설의 역할과 함께 사는 원자력가족임을 분명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